

자원부국 페루는 지금 고속 성장 중!

페루. 요즘 이 낮설고 먼 나라가 심상치 않다.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 수탈과 19세기 말 칠레에게 국토의 요충지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페루는 수많은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치적 분쟁, 사회적 경제적 혼돈을 딛고 최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3,400, 빈곤비율 40%, 전 인구의 14%가 절대 빈곤 상태이지만, 행복지수 세계 33위(한국 102위, 2008년 영국 NEF 발표)를 기록한 페루. 게다가 세계 35위(2008년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으로 31위의 우리나라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페루를 주목해보자.

글_ 유시내 INKE LIMA 지부장(ZAFIRO YU, SAFI GLOBAL 대표)

페루 사상 최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페루 경제는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1970년대 이후 최장, 최고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08년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 9.8%를 달성하였다.(동 기간 중남미 경제는 연평균 3.75, 세계 경제는 3.3%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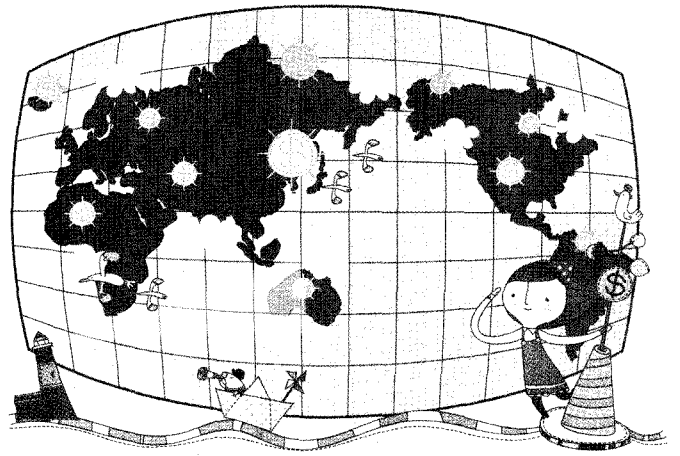
이 같은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 요인은 톨레도 대통령(2001~2006년)에 이어 2006년 7월 16일 만에 재집권 출범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도 시장 개방, 경제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강화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건전화와 물가안정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추진은 페루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제 호황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재정 수지는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정부 부채(GDP 대비)도 2003년 47%에서 2007년 2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2년 도입한 물가목표제에 기반한 통화정책 성공으로 OECD 수준의 매우 안정적인물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고속 경제 성장의 다른 요인은 민간소비의 증가이다. 대외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GNI) 증가와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은 고용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대규모 건설인프라 공사 및 광산업 활황에 따른 고용 창출은 국민소득 증대에 이은 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민간 소비 증대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판매 증가에서 나타나는 데, 2006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데 이어 2007년의 증가율은 55%에 달하였다.

소비증대와 함께 큰 폭의 투자증가세도 고속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근 4년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주요 프로젝트인 브라질-페루를 잇는 남미횡단 고속도로 건설, 카미세아 천연가스개발, Cerro Verde 신규 광산 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에 따라 2005년 25억 달러에서 2009년 10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가르시아 정부는 2006년 집권 이후, 단기간의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식수 공급 및 수처리, 교육, 보건의료, 도로운송, 치안, 농업, 에너지 분야에 '충격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원의 부국 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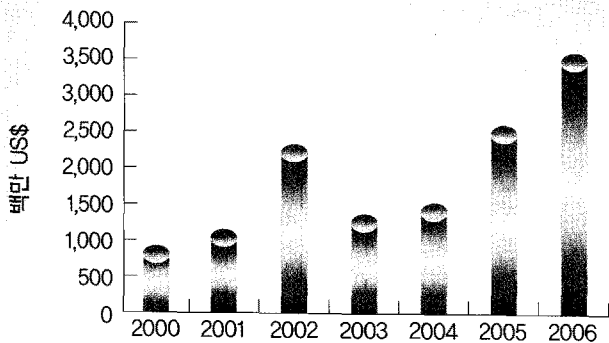
페루의 자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한반도 여섯 배 크기에, 국토의 60%가 아마존 밀림인 페루는 은 생산량 세계 1위, 아연, 창연, 동, 주석, 텔레륨 생산량 세계 3위, 금 생산량 세계 5위를 자랑한다. 최근 페루의 높은 수출 신장세는 총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광물, 어분 등의 1차 생산품의 가격 상승과 교역 조건 개선에 기인한다. 최근의 국제적 불황 도래 이전에 중국 경제의 성장 및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원자재 수요 붐에 따라 페루의 교역 조건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품목별로는 납, 아연, 어유, 석유 및 부산물, 구리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오세아니아(133.8%, 2007년 증가율), 아프리카(80.7%), 아시아(43.4%), 국가별로는 호주(155.6%), 인도(105.3%), 한국(61%) 등이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페루의 수출은 2003년~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 규모도 2003년 91억 달러에서 2008년 28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페루 경제의 전망 및 한-페루 FTA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페루 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페루 경제는 대규모 민간 투자 효과에 따라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on)에 의하면 2007~2010년 민간 투자는 총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페루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중남미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반미, 강경좌파 노선의 국가들과 달리, 페루는 실용주의적이며 시장진화적인 경제 정책 시행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 등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 중 칠레와 멕시코에 이은 FTA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편 한-페루 간 FTA 협상은 2008년 11월 APEC 회담 시 양국 정상에 의해 추진 선언되었으며, 2009년 3월 서울에서의 1차 회담에 이어, 2009

년 5월 리마에서 2차 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 중 서울에서 3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2010년 발효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 조기 타결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한-페루 FTA가 체결되면 현재 9~17%에 이르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관세가 철폐돼 페루시장 내 한국제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해 말 중국-페루 FTA 협상이 완료되고 지난 2월 미국-페루 FTA가 발효되면서 페루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한·페루 FTA의 조기 타결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2008년 기준 한국-페루간의 교역은 수출 7억 2천만 달러, 수입 9억 3백만 달러로 큰 규모는 아니나, 최근 5년간 對페루 수출이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7~2008년 對페루 수출이 54% 증가하는 교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교역 구조는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로서,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35%,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장비, 섬유기계), 화학공업제품(24.5%, 합성수지, 기타 석유화학, 기타 정밀화학, 의약품, 인쇄용지), 전자전기 제품(18.4%, 무선전화기, 칼라TV, 세탁기), 철강금속제품(9.8%, 철강 및 비합금형강, 석도강판, 도금강판)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산물(92.5%, 아연광, 동광, 기타 금속광물, 철광), 농림수산물(5.3%), 석유류(1.2%) 등이다.

한-페루 FTA를 계기로,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적극적 수출 판로 개척에 주력하는 PUSH 전략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 구매를 촉진, 지원하는 PULL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페사 SAFI GLOBAL은 리마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Lima) 등 현지 경제 단체와 협력하여, 페루 기업의 한국 수출을 지원하며 동시에 한국 제품 소싱 및 구매를 도움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양국 기업들이 단기간 내의 수익창출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마케팅을 지양하고,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의 교역 확대를 기대한다.